

지난 3월 말, 새 의장단이 취임되고 지금까지 약 3개월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1년이 임기인 9대인 저희에게는 짧다고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의장단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았고 여러 가지 사건 또한 있었습니다.

이번 9대 의장단은 약 3600표라는 압도적인 표를 받고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선 후 대청의에 익명의 글들이 올라온 사실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약에 대한 실현성과 조희수와 너무 다른 득표 등의 이유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투표 과정 이상이 없다는 사무국의 글과 앞으로 잘 할 것을 약속한 의장단의 말에 대청의 의원들은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의장단의 업무 태만과 대청의 운영 미흡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원들은 혼란스러웠고 불만이 여러 번 불거졌지만 의장단은 그런 피드백 또한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러한 의장단 불신임안 사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장단의 소통의 전무함 및 독단적인 일 처리입니다. 의장단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대표이자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대표입니다. 의장단은 단체를 이끌고 의원들의 활동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의원, 나아가 청소년들과 소통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9대 의장단은 일반의원들과 청소년들과의 소통은 고사하고 각 상임 위원장들과의 소통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들과의 소통을 통해 각 위원회의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생길 시 중립적인 입장에서 피드백을 해 줘야 하는 자리에서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와 같은 의원들의 입장에 의장단 측에서는 현재 충분히 노력 중에 있으며 의장단 페이지 개설, 카드 뉴스 제작 등의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9대 임기가 이미 반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실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에 덧붙여 의장단은 독단적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으로 서기의 회의록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 의장단은 위원장들을 배제한 의장단만의 독단적인 회의를 통해 위원회 서기가 회의록을 올리기 전, 수석서기가 먼저 회의록을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의 없이 결정된 사항에 각 상임위원장들의 항의를 받자 수석서기는 총회의 회의록 작성뿐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의 회의록 피드백을 하는 것이 수석서기의 역할에 포함된다며 이는 자신의 입장이자 의장단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총칙 4장(상임 위원회) 19조(간사와 서기의 역할) 4항에는 기타 간사와 서기의 업무는 상임위원장의 지시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개입되어 있는 사항을 결정하는데 위원장들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한 것은 잘못된 행동이며, 나아가 이는 의장단과 수석서기가 기본적인 총칙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의장단은 이 문제에 대해 수석서기의 잘해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하였는데, 수석서기 또한 의장단의 일원이므로 의장단 내에서 조절했어야 하며 혹여 몰랐다고 한들 의장단 간의 의견 교류가 안 된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신민기 부의장의 경거망동한 행실입니다. 의장단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얼굴이자 대표입니다. 가벼운 자리가 아닌 만큼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무겁게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장준혁 전 정치법제위원장과 김민주 의원이 이준성 전 의원에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자 이를 알게 된 신민기 부의장은 불쾌했는지 이준성 8대 의원에게 '8대하고 임시회의 했다고 좀 빠기시는 거 같은데' 등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 수 없

는 발언을 지속했으며, '9대 일 알아서 뭐하게요 8대면 8대만 딱 하고 8대 끝났으면 깔끔하게 관여 안할 것이지 왜 자꾸 9대인척 행동하세요' 라며 피드백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나아가 김민주 의원에게는 이준성 의원과의 관계를 캐물으며 어느 쪽으로 갈 것인지 묻는 질문 등 편가르기를 한 바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대표가, 의원에게 언어폭력을 저지르고 편을 나누었다는 것에 대해 의장단 자질에 의심이 가며, 청소년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대청의이므로 의장단의 선출과정에 있어서도 투표자가 9대의원만이 아닌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9대 의원만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 또한 단체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피드백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을 우위에 둔 채 무시하는 행실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으로 의장단 측에서는 자신뿐 아니라 8대 대변인 이준성 의원도 권위적 행동과 불쾌한 언행을 하였다고 양측 다 잘못이 있는 바, 둘의 감정싸움으로 초래된 결과이므로 의장단 직무에 대한 불신임안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연예인 등 공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면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온갖 비판과 비난이 잇따르고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지지하는 층이 확연히 줄어들며 사퇴하거나 자숙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일은 대청의 의원 사이에서 발생한 일로, 부의장의 직책에 있는 의원이 너무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피드백을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은 점 그리고 대청의 부의장이라는 직위를 사적으로 이용해 대응한 것에 있어 충분히 자질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신민기 부의장이 이준성 전 의원에게 '고3이 수능공부나 할 것이지 자꾸 9대 끼가지고 나댄다.'고 한 내용은 현재 활동 중인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고3 의원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을 대표하여 단체를 이끌어나가며 의견을 표출해야하는 의장단이 고3은 수능공부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많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의장단의 업무태만입니다. 의장단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를 이끌고 수많은 일들을 처리해야합니다. 단체를 전체적으로 통솔하기 때문에 위원장들에게 업무를 주어야 하고, 적당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9대 의장단은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피드백은커녕 연락조차 한번 없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공식적인 입장 발표마저 하지 않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등이 의장단에게 지적을 하거나 무언가를 피드백하면 들으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장들을 무시한 채 의장단만의 독단적인 회의를 통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여러 번의 의장단 회의를 하고도 단 1차례의 회의록만 올린 상황입니다. 이는 의장단이 의장단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있고, 이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도 진행 순서나 의장단에게 무언가를 제출해야하는 날짜조차 모르고 방향을 잃은 채 순조롭게 활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의장단이 총회 전까지 입법청원안을 제출하라고 하였고 사실상 이 외에는 이렇다 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대변인단에 따르면, 길면 3주 동안이나 아무런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의원들과 의장단 사이에서 순조로운 일처리는 거의 불가하지만, 의장단은 교류나 대처를 통한 관계 개선을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8대 때, 매주 주말마다 정기적으로 직접 위원장들과 통화를 하며 각 위원회의 상황과 필요한 사항, 그리고 바라는 점 등을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친밀해 지려 노력한 것과는 상이합니다.

네 번째로, 사무국에서 어떠한 사항이 내려올 시 의장단은 그 사항을 운영위회의에서 회의를 하고 함께 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번 의장단은 본인들끼리 독단적으로 회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무국에서 제안한 사항을 아무런 운영위회의도 없이 위원장들에게 통보 식으로 전했습니다. 덧붙여, 지난 수석서기 사건 당일 외교통상위원회 정현민 위원장은 수석서기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고 수석서기와의 통화 직후 곧바로 신민기 부의장에게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신민기 부의장은 8대 의장단에서도 회의록을 검토했었으니 그걸 따른 것이라고 했고 정현민 위원장은 지금은 8대가 아닌 9대이며, 새로운 사항을 정할 때는 의장단과 위원장이 함께 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대답하며 하다못해 위원장에게 미리 전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부의장은, 의장단은 사무국의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지시에는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청소년자치단체로서 대표도 청소년이 맡고 예산관리를 제외한 모든 회의진행과 구성, 운영을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사무국은 청소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예산관리와 공문처리, 국회의원 섭외 등 이 단체를 하는 청소년들을 뒷받침하고 지지해주는 기구이기 때문에 의장단이 사무국의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장단은 사무국과 대등한 관계로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요구하고 때로는 적절한 견제를 해야 하죠. 그런데 의장단은 사무국에서 내려온 사항을 그대로 받아 통보했으며, 특히 부의장이 직접 본인들이 사무국의 산하기구라고 말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 잘 인지하지 못한다고 보여지며, 이에 자질이 의심되는 바입니다. 후에 의장단 측에서도 부의장의 이런 발언은 대청의 조직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장단의 공과 사 구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장단의 수석대변인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대변인단을 꾸릴 수 있습니다. 이번 9대 박기병 수석대변인 또한 대변인단을 뽑기 위해 심사를 진행했고, 전화 면접을 했습니다. 원래 대변인단은 수석대변인의 소관으로, 이번 전화면접 또한 박기병 수석대변인이 직접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변인단 후보 모두가 박기병 수석대변인과 통화한 반면, 김민주 의원만이 신민기 부의장과 면접을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신민기 부의장일 평소 알고 지내던 김민주 의원만 자신이 직접 면접 한 것도 모자라 면접 통화 중에도 이준성 전 의원에 대해 묻는 등 사적인 질문을 남발하며 김민주 의원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덧붙여 사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을 시 뒤에 따를 불이익과 관계 훼손을 두려워한 김민주 의원은 어쩔 수 없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장단 측은 서류에 나타나 있는 부분에 질문을 한 것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부의장이 전화 면접을 진행하였다고 해명했으나 심사위원이 달라 불공정 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으며 그런 질문을 할 때의 부의장의 태도에 상대방이 느낀 감정은 필요한 질문이었다는 의장단의 주장과 판이하게 다릅니다.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특히 업무 중에는 평소와는 더욱 다르게 공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의장단이 공과 사 구분 없이 멋대로 행동한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으며,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권력 남용으로 불공정한 심사 과정을 하고 대답을 요구한 것에 실망스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희는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안을 작성하였고,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대청의 9대 의장단이 취임한 직후부터 의혹과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청의 의원들은 투표 결과를 인정하고 의장단을 믿고 지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의장단이 행한 행동들과 언행은 믿고 지지하던 의원들에게 많은 실망과 배신

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의장단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대표이자 청소년 의원을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사향을 봤을 때 더 이상 의장단을 신뢰하고 따를 수 없습니다. 의장단의 행동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의장단에 대한 이런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제기되었다는 것 자체로도 문제입니다.

변명이 없는 잘못은 없습니다. 저희가 불신임안을 작성한 것은 대청의 내부의 파벌 조장이나 의장단에 대한 이유 없는 비호감적 감정이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고 여러분도 동의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청의가 청소년 단체로써 더욱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합니다.

신중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